

공시적 음운 기술과 통시적 음운 변화는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 한국어 평파열음화의 경우 -

이진호*

〈차 례〉

1. 머리말
2.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서의 평파열음화
3. 통시적 음운 변화로서의 평파열음화
4. 공시론과 통시론의 차이 및 그 원인
5. 맺음말

[국문초록]

공시적 기술의 대상은 통시적 변화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공시적 기술과 통시적 변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공시적 기술은 통시적 변화의 과정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은 아니다. 둘 사이의 불일치는 이미 몇몇 언어 현상들을 통해 논의되었다. 그런데 한국어의 평파열음화는 매우 특별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현대 한국어의 평파열음화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며, 입력형이나 출력형도 자명하다. 또한 통시적인 측면에서도 평파열음화는 그 모습이 대체로 명확히 확인된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적 기술과 통시적 변화가 일치될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실제로 평파열음화가 역사적으로 밟아 온 과정과 현대 한국어에서의 공시적 기술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 바가 없다. ‘ㅅ’이 ‘ㄷ’으로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면(이것도 완전한 일치는 아님), 평파열음화의 통시론과 공시론은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 여기에는 평파열음화의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관여한다. 내적 요인으로는 평파열음화의 일부 하위 규칙이 역사적으로 소멸한 것을 들 수 있다. 외적 요인에는 자음 체계의 변화, 몇몇 형태소의 재구조화, 도출을

* 서울대학교

활용하는 공시적 음운 기술의 구조가 있다.

[주제어] 공시론, 통시론, 공시적 기술, 통시적 변화, 평파열음화

1. 머리말

Saussure(1916)에서 공시론과 통시론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안한 이래로 이 둘은 언어 연구에서 구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다. 많은 논의에서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이 둘의 차이점을 명백히 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한 언어의 특정 시기를 형성한 통시론에서의 동태적 변화와, 그 특정 시기의 언어를 정태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공시론에서의 기술은 구분될 수 있었다.

이 둘의 차이는 ‘먹’과 ‘느’의 결합형 ‘먹느’를 통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통시론에서 보자면, 비음 동화가 있기 전에는 ‘먹느’가 표면형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지만 비음 동화가 생긴 후에는 이전의 표면형 ‘먹느’가 사라지고 새로운 표면형 ‘멍느’만 남게 된다. 이것은 구형이 신형으로 대체되는 명백한 언어 변화이므로 통시론의 영역에 해당한다. 반면 현대 한국어의 공시론에서는 기저형인 ‘먹느’에 비음 동화를 적용해서 표면형 ‘멍느’를 도출한다. 기저형은 이론적으로 설정된 것일 뿐이며, 이것이 표면형 ‘멍느’로 실현된다고 해서 구형이 신형으로 바뀌는 문법의 변화가 초래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먹느’와 ‘멍느’ 사이의 관계는 통시론에서와 공시론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통시론과 공시론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이 둘이 전혀 무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시론의 기술 대상 중 통시적 변화의 산물이 아닌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그런데 둘 사이의 성격 차이로 말미암아 통시적 변화의 결과를 공시적으로 기술할 때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역사적으로는 ‘A’가 ‘C’의 과정을 거쳐 ‘B’가 되었었는데 공시적 기술을 할 때는 ‘A’가 ‘D’를 통해 ‘B’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통시론이든 공시론이든 ‘A’가 ‘B’로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차이가 난다.

이러한 통시적 음운 변화와 공시적 음운 기술의 불일치 문제는 이진호(2008)에서 상당히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¹⁾ 그러나 여전히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대표적 음운 규칙 중 하나인 평파열음화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한다. 평파열음화는 음절 종성에서 실현될 수 없는 자음이 평파열음인 ‘ㅂ, ㄷ, ㄱ’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것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 공시적 음운 기술에 다른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진호(2008, 2024)에서 부분적으로 지적한 바가 없지 않으나,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서의 평파열음화는 매우 규칙적이어서 조건만 충족되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또한 적용 환경을 ‘음절 종성’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고, 입력형이 출력형으로 바뀌는 변동의 방향성도 자명하다. 게다가 이전 시기의 문헌 자료에서 그 적용 사례를 풍부하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공시론에서 음운 규칙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바 없고 통시적 자료에서도 그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상, 평파열음화의 공시론과 통시론은 완전 일치 또는 상당 부분 일치가 기대된다. 그런데 이후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 존재하는 평파열음화는 통시론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통해 공시론과 통시론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서 평파열음화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핀다. 평파열음화를 입력형에 따라 하위 규칙들로 나눈 후 각각의 성

1) 이 주제는 음운 이론의 역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적은 없지만, 생성 음운론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Kiparsky(1965: 8)에서 이미 언급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다. 또한 생성 음운론 초기의 추상성 논쟁과도 맥이 닿아 있다. 기저형에서 표면형으로의 도출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비판받았던 경우들 중 상당수는 통시적 음운 변화를 공시적 음운 기술에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시적 변화 과정과 다른 공시적 기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격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3장에서는 통시적 음운 변화로서의 평파열음화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한다. 2장에서 살핀 하위 규칙들 각각에 대해 역사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검토하고 이것이 공시적 규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한다. 4장에서는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공시론과 통시론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평파열음화의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2.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서의 평파열음화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서의 평파열음화는 적용 동기로부터 구체적인 적용 양상까지 대부분이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음절 종성에 실현될 수 있는 장애음의 종류가 평파열음인 ‘ㅂ, ㄷ, ㄱ’으로 제한되는 음절 구조 제약을 충족하기 위해서, 평파열음 이외의 장애음이 종성에 놓이면 ‘ㅂ, ㄷ, ㄱ’ 중 하나로 바뀌는 것이 평파열음화의 본질이다. 특히 경음이나 유기음이 평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일찍이 Trubetzkoy에 의해 자음 대립의 중화 예로서 제시되기도 했다. 그 이후 평파열음화는 국내외에서 ‘음절말 중화’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언급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평음-경음-유기음’의 대립 또는 ‘파열음-마찰음-파찰음’의 대립이 음절 종성에서 사라지므로 중화와 비슷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배주채(1989: 49~50)에서 평파열음화를 중화로 처리할 때의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면서 평파열음화는 중화보다는 여타의 대치에 속하는 음운 현상과 동등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음절말 중화’를 대신하여 ‘평파열음화(또는 평폐쇄음화)’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된 것 자체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말해 준다.

평파열음화의 입력형은 평파열음을 제외한 장애음이다. 그런데 평파열음화가 ‘ㅃ, ㄸ, ㅆ’에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²⁾ 이것은 이 자음들로 끝나는 형

2) 뒤에서 드러나겠지만 경음으로 끝나는 형태소는 근대 한국어 시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 한국어 시기에 들어 ‘ㅆ’으로 끝나던 ‘닭-, 처-’ 등의 말음이 ‘ㅈ’으로 바뀌고, ‘잇-’이 ‘있-’으로 변

태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생긴 우연한 공백에 불과하다. 만약 이런 자음들이 형태소 말음으로 쓰였으면 평파열음화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규칙의 입력형은 ‘평파열음 이외의 장애음’이라고 일반화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평파열음에는 이 규칙이 공적용(vacuous application)된다고 볼 수도 있다.³⁾ 그럴 경우에는 모든 장애음이 평파열음화의 입력형이라고 서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평파열음화의 출력형도 자명하다. 평파열음화가 적용되고 나면 입력형이 ‘ㅂ, ㄷ, ㄱ’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출력형에 대한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는 용어가 ‘평파열음화’이다. 이진호(2017: 534)에서 지적한 것처럼 평파열음화는 매우 다양한 용어의 별칭을 지니고 있으며, 음운 규칙의 출력형을 중시하는 용어에도 여러 계열의 용어들이 존재한다. 그중 다른 음운 규칙의 용어와 대등하면서 한국어 자음 체계를 잘 반영한 것이 ‘평파열음’라는 용어이다.⁴⁾

평파열음화의 적용 환경은 ‘음절 종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이 규칙을 가리키는 ‘음절말 중화, 음절말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등의 용어들은 적용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⁵⁾ 장애음이 음절 종성에 놓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뒤에 아무런 형태소가 오지 않는지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든지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형태소가 올 때 장애음이 음절 종성에 오게 된다. 이처럼 평파열음화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오지 않는 한 적용되며, 이것이 연음의 적용 환경과 배타적인 관계

화면서 경우 중 ‘ㄱ, ㅍ’이 새로이 형태소 말음으로 자리 잡았다.

3) ‘공적용’은 생성 음운론에서 규칙 표시를 간략히 하여 일반성을 포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규칙의 입력형과 출력형이 동일한 경우에 이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평파열음화에 공적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의는 배주채(1992: 185)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4) ‘평파열음화’ 이외에 ‘평폐쇄음화’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자음 체계에서는 ‘폐쇄음’ 대신 ‘파열음’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다면 ‘평파열음화’가 좀 더 적절해 보인다. 다만 ‘평파열음화’든 ‘평폐쇄음화’든 역사적인 연속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 구분관 외(2016: 234)에서 지적한 것처럼 후기 중세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음절 종성의 ‘ㄷ, ㄷ, ㅌ’이 ‘ㅌ’로 바뀌는 것도 평파열음화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ㅌ’은 평파열음이나 평폐쇄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와 이전 시기를 포괄하여 단일한 음운 규칙을 가리킬 때에는 ‘평파열음화’나 ‘평폐쇄음화’ 어느 쪽이든 정확성이 떨어진다.

5) 이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배주채(1992: 195~202)를 참고할 수 있다.

에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평파열음화는 하나의 단일한 음운 규칙이지만 입력형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1) 평파열음화의 하위 규칙

- ㄱ. ㅍ → ㅂ / ___ \$ (\$는 음절 경계) [예] 앞+앞#→[아뻘], 갸+다→[깁따]
- ㄴ. {ㅌ, ㅍ, ㅆ} → ㄷ / ___ \$ [예] 밑#→[민], 솟+다→[손따], 잇+지→[인찌]
- ㄷ. {ㅈ, ㅊ} → ㄷ / ___ \$ [예] 빗#→[빈], 쫓+다→[쫂따]
- ㄹ. {ㅋ, ㅌ} → ㄱ / ___ \$ [예] 부엌#→[부억], 닭+다→[닥따]
- ㅁ. ㅎ → ㄷ / ___ \$ [예] 놓+는→(논는)→[논는], 놓+소→(논소)→(논쏘)→[노쏘]

(1)은 평파열음화의 입력형을 조음 위치에 따라 다섯 가지 하위 규칙으로 구분한 것이다. 평파열음화의 적용을 받는 자음의 조음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평파열음화의 결과 어떤 자음으로 실현되는지는 입력형의 조음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이 자명하되, 다만 (1ㅁ)은 ‘ㅎ’이 ‘ㄷ’으로 실현되는 것을 표면형에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놓는’에서 비음 동화의 적용을 받거나 ‘놓소’에서 후행 자음 ‘ㅍ’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ㅎ’이 ‘ㄷ’으로 바뀐다고 기술하는 것이 다른 방안에 비해 공시론에 부담을 덜 준다.⁶⁾

(1)에 제시된 5개의 하위 규칙들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2) 평파열음화 하위 규칙들의 분류

- ㄱ. 출력형의 종류: (1ㄱ) ⇔ (1ㄴ, ㄷ, ㅁ) ⇔ (1ㄹ)
- ㄴ. 조음 위치의 유지 여부: (1ㄱ, ㄴ, ㄹ) ⇔ (1ㄷ, ㅁ)
- ㄷ. 음성학적 동기의 명확성 유무: (1ㄱ, ㄴ, ㄷ, ㄹ) ⇔ (1ㅁ)

6)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호(2008: 337~339)를 참고할 수 있다.

(2ㄱ)은 평파열음화가 적용되었을 때 ‘ㅂ, ㄷ, ㄱ’ 중 어떤 자음으로 바뀌는지와 관련된다. (1ㄴ, ㄷ, ㅁ)과 같이 ‘ㄷ’으로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2ㄴ)은 입력형의 조음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1ㄱ, ㄴ, ㄷ)은 평파열음화가 적용되어도 조음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1ㄷ, ㅁ)은 그렇지 않다. 평파열음화의 적용 동기를 고려하면 같은 조음 위치에서 폐쇄되는 것뿐이므로 조음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점에서 (1ㄷ, ㅁ)은 예외적인데, 후술하겠지만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2ㄷ)은 미파화 또는 폐쇄화라는 음성학적 동기가 명확한지와 관련된다. (1ㄱ~ㄷ)은 입력형에 해당하는 자음이 미파 또는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1ㅁ)은 ‘ㅎ’이 미파되거나 폐쇄화되면 후두 파열음이 되어야 하는데 출력형은 후두 파열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1ㄱ~ㄷ)과는 차이가 난다.

(2)의 분류를 통해 (1ㄱ~ㅁ) 중 (1ㅁ)의 특수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1ㅁ)과 같이 후음 ‘ㅎ’에 평파열음화가 적용되면 조음 위치도 바뀔 뿐 아니라 단순한 미파화나 폐쇄음화의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것은 평파열음화의 일반적인 성격에서 벗어난다. 그렇다 보니 (1ㅁ)은 (2)에서도 출력형에 따른 기계적 분류(2ㄱ)를 제외하면, 평파열음화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인 (1ㄱ, ㄴ, ㄷ)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부류로 묶이는 경우가 없다.

이러한 (1ㅁ)의 특수성은 평파열음화 규칙을 형식화하거나 설명하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즉, ‘ㅎ’이 ‘ㄷ’으로 실현되는 것을 다른 자음이 평파열음 중 하나로 바뀌는 것과 구분하는 논의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다. 예컨대 Kim-Renaud(1974), 이승재(1980), 최명옥(1982), 배주채(1989) 등에서는 ‘ㅎ’의 평파열음화와 다른 자음의 평파열음화를 분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태도의 근거나 구체적인 서술 방식은 논의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Kim-Renaud(1974: 119~121)의 경우 ‘ㅎ’과 다른 장애음들은 1) [자음성] 자질의 값이 다르다는 점, 2) 평파열음 중 하나로 바뀌는 동기나 과정이 같지 않다는 점, 3) 다른 음운 규칙들과의 적용 순서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중시

하였다. 그 결과 장애음의 평파열음화와 ‘ㅎ’의 평파열음화를 별도의 규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승재(1980: 38, 55)에서는 (1口)을 ‘ㅎ’이 ‘ㄷ’으로 바뀌는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가령 ‘놓는[논는]’은 ‘ㅎ’이 바로 ‘ㄴ’으로 동화된다고 보며, ‘놓소[노쏘]’는 ‘ㅎ’과 ‘ㅅ’이 ‘ㅆ’으로 축약되는 것을 인정한다. 그 결과 이승재(1980)에서는 ‘ㅎ’을 제외한 장애음들의 평파열음화만 존재할 뿐, ‘ㅎ’의 평파열음화는 설정되지 않는다.

최명옥(1982)와 배주채(1989)에서는 평파열음화가 적용되는 조건의 차이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명옥(1982:143, 156)에서 ‘ㅎ’을 제외한 장애음의 평파열음화는 단어 경계나 자음 앞에서 일어나지만, ‘ㅎ’은 ‘ㅅ, ㄴ’ 앞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⁷⁾ 배주채(1989: 81)에서는 ‘ㅎ’ 이외의 자음은 기저 음절 경계 앞에서 평파열음으로 바뀌지만 ‘ㅎ’은 유기음, 경음, 마찰음, 공명음 앞에서 ‘ㄷ’으로 바뀐다고 보았다. 이처럼 적용 조건의 차이를 감안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공시적인 기술 방법에서는 두 논의가 서로 구분된다. 최명옥(1982)에서는 두 가지 평파열음화를 별개의 음운 규칙으로 설정하는 반면, 배주채(1989)에서는 ‘평폐쇄음화’라는 이름 아래에 둘을 묶어 놓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장애음이 평파열음으로 바뀌는 것과 ‘ㅎ’이 ‘ㄷ’으로 바뀌는 것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적 기술에서의 처리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Kim-Renaud(1974)나 최명옥(1982)에서는 둘을 별개의 음운 규칙으로 설정한다. 배주채(1989)는 구분은 하되 하나의 음운 규칙 아래 둔다. 반면 이승재(1980)과 같이 ‘ㅎ’이 ‘ㄷ’으로 바뀌는 음운 규칙을 공시적 기술에서 설정하지 않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 중 어떤 방안이 더 타당한지는 이 글의 논의 주제와는 무관하므로 더 다루지 않는다. 다만, ‘ㅎ’이 ‘ㄷ’으로 바뀌는 과정을 다른 장애음과 구분한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ㅎ’이 미파화나 폐쇄화를 겪으면 ‘ㄷ’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

7) 최명옥(1982: 156)에서는 ‘ㅎ’과 ‘ㅎ’이 ‘ㄷ’으로 실현되는 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하고 있다.

정은 다른 장애음과는 차이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Kim-Renaud(1974: 119)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설정했다.

(3) ‘ㅎ’이 ‘ㄷ’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Kim-Renaud(1974)의 설명

- ㄱ. 1단계: ‘ㅎ’이 ‘ㅎ’으로 미파화
- ㄴ. 2단계: ‘ㅎ’이 후행하는 설정성 자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
- ㄷ. 3단계: (3ㄴ)이 설정성 자음 앞 이외의 ‘ㅎ’으로 확대

(3)에 따르면 ‘ㅎ’도 다른 평파열음화와 마찬가지로 미파화를 겪으며 그 결과 ‘ㅎ’이 된다. 또한 ‘ㅎ’ 뒤에는 설정성 자음이 많이 오므로 ‘ㅎ’이 미파화된 ‘ㅎ’이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면 ‘ㄷ’이 된다. 이러한 변동이 설정성 자음이 후행하지 않는 음절말 ‘ㅎ’으로 확산되어 ‘ㅎ’이 ‘ㄷ’으로 실현되는 현상이 마무리된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설명은 이진호(2003)에서도 나온다. 이진호(2003: 185)에서는 구강 내의 조음 위치가 없는 ‘ㅎ’은 초성에서는 후행 모음, 종성에서는 후행 자음으로부터 조음 위치를 물려받는다고 했다. 공시적 음운 기술의 대상이 되는 용언 활용에서 ‘ㅎ’은 치조음인 ‘ㄴ, ㄷ’ 앞에 오므로 이 자음들의 조음 위치를 그대로 받으면 종성 ‘ㅎ’은 ‘ㄷ’이 될 수밖에 없다. 이진호(2003)의 차이는 (3ㄱ, ㄷ)과 같은 단계를 따로 두지 않은 점에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서의 평파열음화는 특히 ‘ㅎ’이 ‘ㄷ’으로 실현되는 하위 규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ㅎ’을 ‘ㄷ’으로 바꾸는 하위 규칙과 다른 하위 규칙들을 하나로 묶을 것인지 따로 다룰 것인지도 쟁점이지만, ‘ㅎ’이 ‘ㄷ’으로 바뀌는 과정 자체도 해명해야 한다. 다만, 공시론에서 ‘ㅎ’이 평파열음인 ‘ㄷ’으로 실현된다는 점, 이러한 변동이 다른 장애음과 동일한 음절 구조 제약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ㅎ’을 평파열음화의 입력형에 포함하여 다루도록 한다.⁸⁾

8) 이 글에서는 공시론과 통시론의 비교 대상을 가급적 다양하게 하기 위해 ‘ㅎ’을 평파열음화의 입력형에 포함했다. 그런데 ‘ㅎ’을 평파열음화의 입력형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뒤에서 다룰 공시적 기술

3. 통시적 음운 변화로서의 평파열음화

평파열음화는 통시적 음운 변화로서도 오랜 기간 존재해 왔다. 이러한 통시적 변화의 양상이 2장에서 살핀 공시적 기술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특히 2장의 (1)에 제시된 하위 규칙들 각각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파열음화와 같은 음운 규칙에 있어 공시적 기술과 통시적 변화가 일치한다는 것은 곧 음운 규칙의 입력형, 출력형, 적용 환경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이 중 적용 환경이나 출력형의 일치 여부는 매우 간단하다. 적용 환경은 공시론이든 통시론이든 모두 음절 종성이었다는 점이 명확되므로 일치 여부를 더 다룰 필요도 없다. 또한 출력형은 입력형이 어떤 자음으로 바뀌었는지를 단순히 확인하면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입력형의 일치 문제는 통시적으로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공시론과 통시론에서 평파열음화의 입력형이 일치한다는 것은 공시론에서의 입력형이 통시적으로 음절 종성에서 실제로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가령 (1ㄱ)의 ‘ㅍ’이 통시적 음운 변화의 입력형이 된다는 것은 ‘ㅍ’이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야만 ‘ㅍ’이 평파열음인 ‘ㅂ’으로 바뀌는 통시적 음운 변화가 실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력형의 일치 여부는 해당 자음이 이전 시기에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1ㄱ~ㄴ)이 각각 통시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1ㄱ)의 통시적 형태

ㅍ > ㅂ / ____ \$ (\$는 음절 경계)

과 통시적 변화의 불일치라는 결과나 그 원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는 (1ㄱ)이 통시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의 모습이다. ‘ㅁ’으로 끝나는 형태소는 예전에도 없었으므로 음절 종성에서 ‘ㅍ’이 ‘ㅂ’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가 있었는지만 살펴보면 된다. 그런데 차자 표기를 포함한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 ‘ㅍ’이 종성에서 실현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⁹⁾ 양순과 열음 중 종성에서 모습이 확인되는 것은 ‘ㅂ’에 국한된다. 또한 이진호(2024: 207)에서 지적했듯이 ‘ㅍ’에 대응하는 ‘pʰ’를 음소로 가진 242개 언어 중 이 자음이 종성에서 실현되는 언어는 7개에 불과하다.¹⁰⁾ 대부분의 언어들은 종성에서 ‘pʰ’가 실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¹¹⁾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4)와 같은 음운 변화가 한국어에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5) (1ㄴ)의 통시적 형태

{ㄷ, ㅌ, ㅆ} > ㄷ / ____ \$ (\$는 음절 경계)

(5)는 (1ㄴ)에 대응하는 통시적 음운 변화이다. 우선, ‘ㄷ’이 ‘ㄷ’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는 (4)와 동일한 이유로 실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음절 종성에서 ‘ㄷ’이 그대로 발음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는 아직까지 나타난 바 없다. 또한 ‘ㄷ’에 대응하는 ‘tʰ’를 음소로 가진 200개의 언어들 중에는 겨우 3개 언어에서만 이 자음이 종성에서 실현될 만큼 ‘tʰ’는 종성에서 발음되는 경우가 유형론적으로 극히 드물다.

‘ㅆ’이 ‘ㄷ’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 역시 역사적으로 실재한 적이 없다. 이러한 통시적 변화가 있으려면 ‘ㅆ’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 ‘ㅆ’을 말음으로 가지는 ‘있-’이나 ‘-았/었-, -겠-’은 원래

9) 강신항(1991: 15)에는 ‘ㅆ’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 ‘所非, 所比’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非, 比’의 성모는 중고음이 전청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종성의 유기음 ‘pʰ’를 표기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0) 이하에서 언급하는 유형론적 경향성은 이진호(2024)에 의거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11) ‘pʰ’를 포함한 유기음이 종성에서 실현되는 극히 일부의 언어들은 인도 부근의 서아시아나 아메리카 대륙과 같이 한국어와는 멀리 동떨어진 지역에서만 쓰인다. 따라서 이들 언어들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한국어의 유기음도 예전에 종성에서 그대로 발음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그 발음이 ‘ㅅ’이었으며, 근대 한국어 후기에 가서야 ‘ㅆ’을 발음으로 가지게 되었다.¹²⁾ 그 시기는 이미 ‘ㅆ’이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지 못했으므로 종성의 ‘ㅆ’이 ‘ㄷ’으로 바뀌는 통시적 변화 역시 일어날 수가 없었다.

(5)에서 역사적으로 실재한 것은 ‘ㅅ’이 ‘ㄷ’으로 바뀌는 변화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5세기 한국어는 현대 한국어와 달리 종성에서 ‘ㅅ’이 그대로 발음되었다.¹³⁾ 그러다 16세기에 접어들어 ‘ㅅ’은 ‘ㄷ’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점에서 종성 ‘ㅅ’이 ‘ㄷ’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는 통시적으로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현대 한국어의 평파열음화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그 당시 ‘ㅅ’의 조음 위치는 치음으로서 현대 한국어의 치조음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치음이 ‘ㄷ’으로 바뀌는 통시적 음운 변화와 치조음이 ‘ㄷ’으로 바뀌는 공시적 음운 규칙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6) (1ㄷ)의 통시적 형태

{ㅈ, ㅊ} > ㄷ / ____ \$

(6)은 (1ㄷ)에 대응하는 통시적 음운 변화로서의 평파열음화이다. (6)의 입력형 중 ‘ㅈ’은 역사적으로는 종성에서 발음되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진호(2024: 192~195)에서 다루었듯이 최소한 ‘ㅈ’은 후기 중세 한국어 이전 시기에 종성에서 발음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한다. ‘ㅊ’은 차자 표기의 한계로 인해 종성에서의 실현 여부를 단정 짓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언어 보편적으로 볼 때 파찰음 자체가 음절 종성에서 가장 선호되지 않으며 유기성 자음은 더욱 더 종성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ㅊ’이 종성에서 온전히 실현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¹⁴⁾

12) 이와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는 송철의(2000)을 참고할 수 있다.

13) 종성의 ‘ㅅ’이 ‘ㄷ’과 구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사적 이견이 없지 않으나, ‘ㅅ’이 온전히 발음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이에 대한 초창기의 근거는 이기문(1977: 78~80)에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종성 ‘ㅅ’의 존재를 부인하는 논의이기는 하지만 이동석(2020)에서는 이와 관련된 근거들을 총체적으로 살핀 바 있다.

그런데 ‘ㅈ’을 포함하여 ‘ㅊ’까지 역사적으로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통시적 음운 변화는 경구개음인 ‘ㅈ, ㅊ’이 평파열음인 ‘ㄷ’으로 직접 바뀌는 (1ㄷ)과는 다른 형태로 일어났다.

(7) 15세기 한국어에서 ‘ㅈ, ㅊ’의 종성 실현

ㄱ. 닛다(닛 + 다), 닛고(닛 + 고), 닛느니(닛 + 느니)

ㄴ. 좇디(쫘 + 디), 좇고(쫘 + 고), 좇노라(쫘 + 노라)

(7ㄱ, ㄴ)에서 알 수 있듯이 15세기 한국어에서 형태소의 말음 ‘ㅈ, ㅊ’은 종성에서 ‘ㅅ’으로 실현되었다.¹⁵⁾ ‘ㅈ, ㅊ’으로 끝나는 다른 형태소들도 기본적으로 (7)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 두 자음이 그 이전 시기에 종성에서 온전하게 발음되었더라도 15세기 이전에 ‘ㅅ’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 준다. 이후 16세기를 거치면서 ‘ㅅ’이 ‘ㄷ’으로 바뀌는 변화에 함께 편승하여 현대 한국어에서는 ‘ㄷ’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통시적 변화 과정을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 음운 규칙인 (1ㄷ)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ㅈ, ㅊ’에 적용되는 통시적 음운 변화로서의 평파열음화는 ‘ㅈ, ㅊ’이 경구개음이 아닌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 그 출력형도 곧바로 ‘ㄷ’으로 된 것이 아니라 ‘ㅅ’을 거친 후 ‘ㄷ’으로 되었다는 점에서 공시적 기술과 통시적 과정은 명확히 구분된다. 음절 종성의 경구개음이 ‘ㄷ’으로 바뀌는 통시적 음운 변화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

(8) (1ㄷ)의 통시적 형태

{ㄱ, ㅍ} > ㄱ / ____ \$

(8)은 연구개음의 평파열음화가 (1ㄷ)과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14) 유기음을 음소로 가진 언어들 중 유기음이 종성에서 온전하게 실현되는 비율은 평균 3.8%에 불과하다. 이것은 평음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15) 용언 어간 중에는 ‘-쫘-’ 앞에서 말음이 ‘ㅅ’ 대신 ‘ㄷ’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논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의 음운 변화이다. (8)이 성립하려면 ‘ㄱ’이나 ‘ㄲ’으로 끝나는 형태소들이 이전 시기에 존재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전 시기의 형태를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ㄱ’으로 끝나는 형태소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넋, 부엌’ 또는 이 형태소들이 결합된 복합어에 국한되며, 특히 이들은 이전 시기에 ‘넋, 부엌’과 같이 ‘ㄱ’이 아닌 다른 자음으로 끝나고 있었다. ‘ㄲ’으로 끝나는 형태소 역시 예전에는 예외없이 ‘지(ㅈ + ㅊ)’이라는 자음군으로 끝났다. 입력형 자체가 ‘ㄲ’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평파열음화의 적용 환경이 되면 ‘지’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ㅈ’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ㄲ’이 ‘ㄱ’으로 바뀌는 공식적 음운 규칙과는 전혀 다른 통시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8)과 같은 통시적 음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현재 남아 있지 않은 형태소들 중에 ‘ㄱ, ㄲ’으로 끝나는 것이 있었다고 해도 (8)과 같은 변화가 실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5)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전 시기의 언어 자료에 이러한 자음들이 종성에서 발음되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ㄱ, ㄲ’에 대응하는 음소를 가진 다른 언어들도 봐도 이 두 자음이 종성에서 실현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¹⁶⁾ ‘ㄱ, ㄲ’이 종성에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 (8)과 같은 통시적 변화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

(9) (1ㄴ)의 통시적 형태

ㅎ > ㄷ > ____ \$

마지막으로 (9)는 후음 ‘ㅎ’의 평파열음화와 관련된다. 음운 변화로서 (9)가 존재했다면, ‘ㅎ’이 종성에서 발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방향도 ‘ㄷ’으로 단일해야만 한다. 그런데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우선 ‘ㅎ’이 종성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는지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16) ‘ㄱ’에 해당하는 ‘kʰ’를 음소로 가진 243개 언어 중 7개 언어에서만 이 자음이 종성으로 실현된다. 또한 ‘ㄲ’에 해당하는 자음은 종성으로 실현되는 경우 자체가 발견된 바가 없다.

이기문(1977: 85)에서는 『향약구급방』의 ‘薯蕷 𪛗支’에서 ‘𪛗支’를 ‘땅’으로 해독하고 13세기 중엽까지는 ‘ㅎ’이 종성으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남풍현(1981: 88)에서는 같은 자료를 다르게 해독한 바 있다. 정철주(1995: 11)에서는 차자 표기를 통해 고대 한국어에 ‘ㅎ’이 발음되었다고 했지만 해당 표기가 종성 ‘ㅎ’만을 표기한 것인지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된 형태를 표기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ㅎ’이 종성에서 온전하게 발음되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¹⁷⁾ 그러나 15세기에 종성의 ‘ㅎ’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면, ‘ㅎ’이 종성에서 발음되었다고 하더라도 (9)와 같은 단일한 음운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0) 15세기 한국어에서 ‘ㅎ’의 종성 실현 양상

- ㄱ. 낱느니라(낱 + 느니라), 논노니(논 + 노니)
- ㄱ'. 낱느니(낱 + 느니), 논논(논 + 논)
- ㄴ. 나쓰븓시니(낱 + 스븓시니), 비쭙고(빙 + 쭙고)
- ㄴ'. 낱스온대(낱 + 스온대), 빗스오며(빙 + 스오며)

(10ㄱ, ㄱ')과 (10ㄴ, ㄴ')은 각각 형태소의 말음 ‘ㅎ’이 ‘ㄴ’과 ‘ㅅ’ 앞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10ㄱ)과 (10ㄱ')의 차이는 자음 동화의 적용 여부임을 고려할 때 ‘ㄴ’ 앞의 ‘ㅎ’은 현대 한국어와 동일하게 ‘ㄷ’으로 변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10ㄴ, ㄴ')에서 보듯 ‘ㅅ’ 앞의 ‘ㅎ’은 ‘ㄷ’으로 바로 바뀌는 변화를 역사적으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10ㄴ)과 (10ㄴ')의 차이는 ‘ㅎ’과 ‘ㅅ’이 ‘ㅆ’으로 축약된 모습인지 아니면 ‘ㅎ’이 종성에서 ‘ㅅ’으로 실현되는지의 차이에 있을 뿐이다. 어떤 경우든 종성의 ‘ㅎ’이 ‘ㅅ’ 앞에서 ‘ㄷ’으로 바뀐 예는 15세기 한국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ㅎ’이 예전에 종성에서 발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10)과 동일

17) 유형론적으로 ‘ㅎ’에 대응하는 ‘h’는 종성에 오는 것이 그리 부자연스럽지는 않다. ‘h’를 음소로 가진 525개 언어 중 169개 언어에서 이 자음이 종성에 나타난다.

하게 ‘ㄷ’으로 일률적인 변화를 겪지는 않았으며, 최소한 ‘ㅅ’ 앞에서는 ‘ㄷ’으로가 아닌 다른 변화를 거쳤음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1ㄱ)과 일치하는 역사적 음운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4. 공시론과 통시론의 차이 및 그 원인

2장과 3장의 논의를 통해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서의 평파열음화와 통시적 음운 변화로서의 평파열음화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현대 한국어의 평파열음화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의 방향도 명확하다. 문헌 자료를 통해 살펴본 통시적 변화로서의 평파열음화도 그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둘의 모습을 비교하면 기대와 달리 상당히 다른 면모가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1)에서 구분했던 평파열음화의 공시적 하위 규칙들 중에는 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다. 예컨대 (1ㄱ)과 (1ㄴ)은 물론이고 (1ㄷ)에서 ‘ㅌ, ㅍ’을 입력형으로 하는 평파열음화는 통시적으로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변화이다. 즉, (1)에서 평파열음화의 입력형이 되는 9개 자음 중 5개는 통시적 변화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적 규칙의 입력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1ㄷ), (1ㄱ)은 해당 자음들을 입력형으로 하는 평파열음화가 역사적으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변화의 양상은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 음운 규칙과는 다르다. 가령 (1ㄷ)의 ‘ㅅ, ㅈ’은 처음이던 시기에 ‘ㄷ’이 아닌 ‘ㅅ’으로 먼저 바뀌었으며, 이후에 ‘ㄷ’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1ㄷ)에서 ‘ㅅ, ㅈ’이 ‘ㄷ’으로 바뀐다고 기술한 공시적 규칙은 ‘{ㅅ, ㅈ} > ㅅ > ㄷ’과 같은 여러 역사적 변화 단계가 하나로 합쳐진 과정(rule telescoping)의 결과였던 것이다. 또한 (1ㄱ)에서 ‘ㅅ’ 앞의 ‘ㅎ’은 역사적으로 ‘ㄷ’으로 바뀌지는 않았음이 분명하다.

유일하게 공시적 규칙과 통시적 변화의 형태가 가까운 것은 (1ㄴ)의 ‘ㅅ → ㄷ’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통시적 변화가 일어날 당시의 자음 체계에서 ‘ㅅ’

의 조음 위치가 치조음이 아닌 치음이었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평파열음화는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 기술에서나 역사적 변화의 측면에서나 그 존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큰 차이가 놓여 있다.

이진호(2008: 201)에서는 하나의 음운 규칙에 있어 공시적 기술과 통시적 변화의 내용이 서로 달라지는 중요한 원인으로 기저형의 변화, 규칙의 소멸, 통시적 사건 순서와 공시적 규칙순의 차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평파열음화의 경우에는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여 좀 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 요인들은 크게 평파열음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평파열음화의 내적 요인으로는 하위 규칙의 소멸을 들 수 있다. 평파열음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하위 규칙이 사라졌다. 3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ㄴ, ㄷ’이 ‘ㄴ’으로 바뀌는 변화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종성 ‘ㄴ’이 이후 ‘ㄷ’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에 영향을 받아 소멸되었다.¹⁸⁾ 이처럼 평파열음화의 일부 하위 규칙이 역사적으로 없어져서 공시적 음운 규칙에 더 이상 포함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통시적 변화를 공시론에서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평파열음화의 공시론과 통시론이 달라진 데에는 규칙의 내적 요인보다도 외적 요인이 좀 더 다양하다. 외적 요인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1) 평파열음화의 공시론과 통시론이 달라진 외적 요인

- ㄱ. 자음 체계의 변화
- ㄴ. 기저형의 변화
- ㄷ. 공시적 음운 기술의 구조적 성격

18) (10ㄴ)을 종성의 ‘ㅎ’이 ‘ㄴ’으로 바뀌는 역사적 변화로 해석한다면 이것도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규칙 소멸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처럼 출력형이 다른 음운 변화의 영향으로 바뀌어 버리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

(11ㄱ)에서 말하는 자음 체계의 변화란 중세 한국어의 치음이 겪은 조음 위치의 변화를 가리킨다. 그 당시 치음이던 ‘ㅅ, ㅆ’과 ‘ㅈ, ㅊ, ㅍ’은 이후 치조음과 경구개음으로 조음 위치가 바뀌었다. 이처럼 자음의 조음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공시적 음운 규칙의 입력형과 통시적 음운 변화의 입력형이 서로 불일치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치음이 평파열음화의 적용을 받았지만, 현대 한국어의 공시론에서는 치조음이나 경구개음이 평파열음화의 적용을 받는다.

(11ㄴ)은 평파열음화의 적용을 받는 형태소들의 범위와 관련된다. 3장의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역사적으로 ‘ㄱ, ㅋ, ㆁ’으로 끝나는 형태소는 예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자음들이 평파열음화의 적용을 받는 통시적 변화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ㄱ, ㅋ, ㆁ’을 발음하는 하는 형태소들이 생겨났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는 실재하지 않았던, ‘ㄱ, ㅋ, ㆁ’의 평파열음화가 공시적 음운 기술에서는 설정되었다.

(11ㄷ)은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을 도출한다는 공시적 음운 기술의 성격으로 인해 공시론과 통시론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11ㄷ)은 (1ㄱ, ㄴ)의 ‘ㅍ, ㅌ’이 각각 음절 종성에서 ‘ㅂ, ㄷ’으로 실현되는 평파열음화와 관련된다. 이 자음들은 역사적으로 종성에서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통시적 음운 변화로서의 평파열음화가 적용된 적도 없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 음운 기술에서는 기저형이 ‘ㅍ, ㅌ’으로 끝나는 형태소들의 표면형을 도출하기 위해 ‘ㅍ, ㅌ’이 ‘ㅂ, ㄷ’으로 바뀌는 평파열음화 규칙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도출’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공시적 음운 기술의 구조로부터 비롯된 결과이다.

5. 맺음말

현대 한국어에 실재하는 공시대, 즉 공시론의 기술 대상 중 통시적 변화와

무관한 것은 전혀 없다. 통시적 변화를 거친 것은 물론이고, 변화가 없는 것 역시 예전의 산물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시적 기술의 내용은 통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공시론과 통시론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들의 내용은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비음 동화와 같이 통시적 음운 변화로서나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서나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평파열음화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평파열음화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현대 한국어의 음운 규칙으로서, 고유어 형태소의 교체는 물론이고 외래어 수용을 비롯한 발음 전반에 크게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한국어의 평파열음화는 그 존재가 자명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변화로서의 면모도 문헌 자료 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하여 평파열음화의 역사적 과정과 공시적 기술은 상당히 가까우리라는 기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평파열음화는 실제로 겪은 통시적 변화로서의 모습과 현대 한국어의 공시적 기술 내용이 극도로 다른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평파열음화의 공시적 기술은 실제 역사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에 제시된 것과 같은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서의 평파열음화를 인위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폄하할 수는 없다. 이전 시기의 통시적 변화를 모르는 현대 한국인들의 언어 지식 속에는 (1)과 같은 평파열음화가 들어 있다. 현대 한국인들은 이 규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면서 언어를 사용할 뿐이다. 다만 평파열음화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공시적 기술의 내용이 매우 자명하다고 해서 그 역사적 과정도 동일하리라고 선불리 단정하는 것은 곤란함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구본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II)』, 집문당, 2016.
- 남풍현, 『차자표기법연구』, 단국대 출판부, 1981.
- 신승용, 『국어 음절의 역사』, 태학사, 2023.
- 이기문, 『국어 음운사 연구(재판)』, 탑출판사, 1977.
- 이진호,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2008.
- _____, 『국어 음운론 용어 사전』, 역락, 2017.
- _____, 『한국어 중성 체계의 언어 유형론』, 서울대 출판문화원, 2024.
- 최명옥,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1982.
- 허 웅, 『국어 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1985.
- Kenstowicz, Michael & Charles Kisseberth, *Topics in phonological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 Kiparsky, Paul, *How abstract is phonolog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1968.
- Saussure, Ferdinand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Lausanne and Paris: Payot, 1916. 최승언 역,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1990.
- Trubetzkoy, Nikolai S., *Grundzüge der Phonologie*, Prague: Travaux du Cercle Linguistique de Prague, 1939. 한문희 역, 『음운학 원론』, 민음사, 1991.

2. 논문

- 강신형, 「고대국어의 음절말자음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2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1, 7~28쪽.
- 김무림, 「처음의 불파음화에 대한 통시적 조명」, 『국어학연구백년사(II)-의미론-국어사-』, 일조각, 1992, 550~562쪽.
- 김원진, 「계림유사와 음절말 자음」, 『국어학』 12, 국어학회, 1983, 35~46쪽.
- 김유범, 「국어의 자음체계와 음절말 중화에 대한 통시적 조명」, 『어문논집』 38, 민족어문학회, 1998, 295~316쪽.
- 김주필, 「중세국어 음절말 처음의 음성적 실현과 표기」, 『국어학』 17, 국어학회, 1988, 203~228쪽.
- 박창원, 「중세 국어의 음절말 자음 체계」, 『국어학』 13, 국어학회, 1984, 171~197쪽.
- 배주채,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 서울대 국어연구회, 1989.
- _____,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 국문과, 1992, 181~204쪽.
- 송철의, 「용언 ‘있다’의 통시적 발달에 대하여」, 『朝鮮語研究』 1, 朝鮮語研究會, 2000, 207~237쪽.
- 안병희, 「십오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서울대 국어연구회, 1959.
- _____, 「해례본의 팔중성에 대하여」,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 3~24쪽.
- 이기문, 「아자비와 아즈미」, 『국어학』 12, 국어학회, 1983, 3~12쪽.
- 이동석, 「팔중성법의 실현 양상과 음운론적인 해석」, 『국어사연구』 31, 국어사학회, 2020, 63~135쪽.
- 이승재, 「구례지역어의 음운 체계」, 『국어연구』 45, 서울대 국어연구회, 1980.

이진호, 「국어 ㅎ-말음 어간의 음운론」,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167~195쪽.

Kim-Renaud, Young-Key,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Doct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Hawaii, 1974.

Kiparsky, Paul, "Phonological Change", Doctral dissertation of MIT, 1965.

How Different can Synchronic Description and Diachronic Change be in Phonology?

A Case for Syllable-final Unreleasing in Korean

Lee Jinho*

The target of synchronic description is the result of diachronic change. Therefore, synchronic description and diachronic change are very closely related. However, synchronic description does not simply recapitulate the process of diachronic changes. The discrepancy between these two has already been discussed through several linguistic phenomena.

The syllable-final unreleasing in Korean (hereinafter SFU) deserves renewed attention as a very special case. In present-day Korean, SFU is so productive that it does not allow exceptions, and its input and output are self-evident. Diachronically, its existence is clearly confirmed. In such cases, it is generally expected that diachrony and synchrony of SFU coincide or have a lot in common.

In practice, however, the historical process and the synchronic description of SFU are almost completely different. Except for the case where ‘s(ㅅ)’ changes to ‘t(ㅌ)’-which is not a complete match either-, the diachrony and synchrony of SFU show quite different aspects. Such unexpected results are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SFU. The former includes the historical rule loss, and the latter includes changes in the consonant system, the restructuring of some morphemes, and a structural feature of synchronic phonology that derive suface forms from underlying forms.

*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synchrony, diachrony, synchronic description, diachronic change,
syllable-final unreleasing in Korean (SFU)